

동국어문학 제1집

ISSN : 1975-0641(Print)

敘述格助詞 <이다>에 대하여

심영민

To cite this article : 심영민 (1987) 敘述格助詞 <이다>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1, 84-102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叙述格助詞〈이다〉에 대하여

심 영 민

目 次

I. 序 論	IV. 〈이다〉에 대한 諸學者의 견해
II. 單語의 規定	V. 諸見解에 대한 問題點
III. 品詞의 概念	VI. 結 論

I. 序 論

現行 學校文法에서 ‘叙述格 助詞’로 인정되고 있는 〈이다〉는 그간 우리 文法學界에서 가장 심한 論難의 대상이었다.

品詞分類에 있어 獨立品詞로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정할 수 없느냐, 獨立品詞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어느 品詞에 속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이유가 〈이다〉자체가 자니고 있는 性格의 애매성에서 비롯됨은 물론이다. ‘무엇이다’라고 규정지을 수 없는 性格의 애매성 때문에 그간 諸學者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였고, 이러한 理論文法의 혼란으로 學校文法의 統一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學者들의 자기 學說에 대한 고집은 대단한 것이어서, 文敎部가 「學校文法 統一案」을 公布했다가 3년 뒤에 이를 다시 번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¹⁾

是非에 是非를 거듭한 끝에 오늘날은 어엿한 統一 文法體系를 가지게 되었고, 〈이다〉도 叙述格 助詞로서의 위치를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文法을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은 물론일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學校文法이 統一된 마당에 〈이다〉의 문제를 왜 다시 끄집어내느냐고 或者는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 뛰어난 선배 學者의 뒤를 이은 後學들이 여전히

1) 李鍾寅, “「學校文法」 20 年分爭의 來歷”, 신동아 29 호 .1967

그들 선배들의 理論을 추종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統一된 學校文法體系를 바탕으로 <이다>가 叙述格 助詞임의 근거를 밝혀 統一된 學校文法の 위치가 확고함을 제시하려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品詞分類上 <이다>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단어의 규정과 品詞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諸學者들의 學說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다>의 분명한 문법상의 특성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려 한다.

Ⅱ. 單語의 規定

<이다>의 品詞로서의 위치를 決定하기 위해선 品詞分類의 問題를 다루어야 할 것이고, 品詞分類의 問題를 다루기 위해선 單語부터 規定해야 할 것이다. 單語를 規定하기란 그리 간단한 問題가 아니다. 여기에선 먼저, 國語文法學界를 傳統文法과 Bloomfield의 영향을 받은 構造主義文法の 두 部分으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소위 傳統文法の 單語觀으로 최현배는²⁾ “날말은 말의 단위이니, 따로따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함(話)과 글월(文)을 이루는 직접의 재료가 되는 것” 이라 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를 提示하고 있다.

1) 날말은 소리의 단위가 아니다.

2) 날말은 생각의 날덩이(單位)가 아니다.

3) 날말은 월을 쪼갈라(分析해) 놓은 날덩이이다. 一조가름에는 어떠한 표준이 있어야 한다. 一그러나, 월의 조각(成分)의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 날말은 말의 단위이니, 그것이 어떠한 뜻을 나타냄은 물론이어나와, 그것이 월을 이룰 적에 항상 그 재료의 한 날덩이가 되나니, 월의 쪼가름의 대중(標準)은 이 날덩이의 성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데 까지에 있다.

5) 날말은 말의 날덩이로서의 따로설만함(分立性)을 가진 것이라 하고, 여기에서 따로설만함이란 항상 제 스스로 한 날이 되어서 다른 말과 떨어져 여러 가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상의 條件을 제시하고 날말이란 것은 “더 쪼가릴 수 없는 말의 날덩이이니, 반드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말함과 글월을 이루는 직접의 거리(材料)가 되는 것이니라” 하고 날말의 定義를 내리고 있다.

2)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 pp. 144 ~ 147.

이희승은 3) “ 단어라는 것은 文法的 意味보다는 주로 音韻에 의거한 意義方面的 分節的 단위를 표시하려는 의도 아래에 이루어진 用語 ”라 하여 品詞와는 차이가 있음을 明白히 나타내고 있다.

한편, Bloomfield는 4) “ Words are minimum free forms capable of acting as a complete utterance ”라 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構造文法의 單語觀으로 김형규는 5) “ 낱말은 一定한 뜻을 가진 言語의 單位 ”라 하였다. 또 김민수는 6) “ 單語는 品詞의 감(資材) ”이라 하여 이희승처럼 單語와 品詞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장하일은 7) “ 낱말의 定義는 形態로 보는 것이 첫째요 音聲으로 보는 것은 제 2차적인 것 ”이라 하여 形態로는 “ 獨立形態로서 이은말 (phrase) 아닌 것이 낱말이다. 낱말이란 둘 이상의 보다 작은 獨立形態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낱말이란 가장 작은 獨立形態 ”라 하였다. 音聲으로는 “ 獨立形態 즉 낱말은 獨立된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 言語의 音聲的 規範에 관한 문제다. 그러므로 낱말에는 보통 音節로 된 音素를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고 하여 Bloomfield의 理論을 바탕으로 單語를 規定하고 있다.

또한 이길록은 8) “ (1)단어는 有意味의 最小自立形式이다. 따라서 單語는 分立性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前後에 순간적인 休止가 온다. (2)單語는 構文要素의 最小單位다. 따라서 單語는 文 중에서 여러 위치에 나타나 單獨으로 文이 될 수 있다 ”고 하여 單語가 形態論과 統辭論 두 분야에 모두 걸쳐 있는 言語單位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單語에 대한 規定은 學者마다 다르며, 같은 傳統文法 같은 構造文法이라 하여도 그 견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分명한 것은, 單語는 文法研究의 基本單位로 一細分하면 形態論의 最大單位가 單語이며 同時に 統辭論의 最小單位가 單語이다. 一言語構造의 分析上 形態論의 研究對象도 되고 統辭論의 研究對象도 되는, 두 研究分野에 다 걸쳐 있는 言語單位라는 것이다. 9)

따라서, 單語의 本性을 드러낼 수 있는 規定은 이 양 측면에서 究明해 보는 것이

3) 이희승,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1955 p.197.

4) Bloomfield, 「Language」 p.180. 신의성, “-이다”에 대하여 한글 142 (한글학회, 1968)에서 재인용.

5) 金亨奎, 「國語學概論」, (一朝閣, 1982), p.95.

6) 金敏珠, “國語品詞論”, 고대문리논총 2집 (1957) p.2.

7) 장하일, 「낱말의 정의」, 이희승선생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1957.4), p.18(630).

8) 李吉鹿, 「國語文法研究」, 日新社, 1974, p.99.

9) 따라서, 문법기술의 가장 유용한 기본단위가 되기 때문에 단어는 문법연구의 기본 단위라고 하겠다. 이길록, 「국어문법연구」 일신사, 1981, p.85.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論理도 言衆들의 言語意識에서 비롯한 言語事實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學校文法の 경우는 더욱 그렇다. 單語란 그 말을 쓰는 言衆이 가지고 있는 言語意識의 單位이기 때문이다.¹⁰⁾ 따라서 一律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우리 國語가 가지는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그 글월에 포함된 單語의 性格에 따라서 獨立할 수 있는 말은 獨立시키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한 덩어리로 하여 單語를 定立시키자는 折衷的 方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¹¹⁾ 따라서 單語란 “自立할 수 있는 말이나 自立形態素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들”¹²⁾로 規定함이 온당할 것 같다.

Ⅲ. 品詞의 概念

1. 品詞의 性格

品詞란 “單語를 文法的 職能에 따라 分類한 것”¹³⁾ “單語에 職能-글월 속에 있어서 行하는 任務-이 「플러스」된 것”¹⁴⁾ “날말을 그 性質에 따라 分類한 것”¹⁵⁾ 그리고 “모든 單語 즉 어휘가 文法的 性質이나 機能에 의하여 어떻게 分類될 것인가 하는 統辭論(文章論: syntax)적 범주에 관한 술어”¹⁶⁾ 등등 그 定義가 單語의 규정처럼 매우 다양하다. 單語의 규정이 각기 다르듯, 그것을 對象으로 한 品詞의 定義가 각기 다른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만큼 한 마디로 定義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學校文法에서는 品詞를 “性質이 공통된 單語끼리 모아 놓은 單語의 갈래”¹⁷⁾라 定義하고 있는데, 이는 文法記述을 보다 효과적이고 合理的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적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品詞의 設定은 形態論이나 統辭論의 記述에 모두 공통성을 가진 문법범주이므로, 그 어느 쪽에서든지 理論적으로 타당하고 그 두 分野에 일관성 있는 規定을 가지고서 文法記述에 보다 효용성 있는 方向으로 設定¹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0) 서병국, 「국어문법논고」, 형설출판사, 1973. p.46.

11) 이희승, 「내가 주장하는 국어문법의 기준」, (1959) 한글 125, p.27.

12) 성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문법」, (1985), pp.11~12.

13) 정인승, 「우리말의 씨가름(품사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 (1959) p.32.

14) 金敏珠, 「국어품사론」, 고대문리논총 2집 (1957) p.2.

15) 金亨奎, 「國語品詞分類의 問題點」, 이송녕박사 송수기념논총 (1968) p.3.

16) 이희승, 「국어학개론」, 민중서관, 1955, p.197.

17) 성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고등학교 「문법」 1985 p.13.

18) 李吉鹿, 「國語文法研究」, 日新社, 1974, p.101.

결국, 品詞란 單語가 가지는 性質을 기준으로 分類한 것이고, 그것의 設定은 文法記述의 効用이란 問題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品詞分類의 基準

單語는 세 가지의 性質을 가진다. 意味, 形態, 職能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性質 중에서 어느 것을 基準으로 하여 品詞分類를 할 것인가. 대체로 品詞分類란 名詞를 性質(특히 文法的 性質)에 따라 分類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意味的인 要素가 介할 수 없다.¹⁹⁾ 따라서, 品詞의 分類는 形態와 職能을 基準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品詞를 分類하는 目的은 그 言語의 構造를 연구하려는 데 있으니, 文法的인 記述을 위해서 文法的인 性質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이다. 文法上的 性質은 크게 形態(form)와 職能(functi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런데, 單語의 形態는 글월에서 말하는 職能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글월을 構成하는 職能의 共通性이 品詞分類의 가장 基本的 基準이 되는 것이다.²¹⁾ 品詞란 것이 원래 글월을 전제로 해서 存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分類도 응당 글월의 單位가 지니고 있는 글월을 構成하는데 필요한 文法的 作用의 特徵에 基準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文法的 機能上的 特徵을 가지고 나누어야 할 것이다.²²⁾ 그러나 理論文法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와 같아야 타당하겠으나, 實用文法인 學校文法에서는 機能과 形態를 基準으로 한 理論文法에 單語의 意味를 더하여 體系를 세우는 것이 편리하리라 생각된다.

결국, 品詞分類는 意味, 形態, 機能의 세 가지 性質을 綜合적으로 고찰하되, 基準은 첫째, 그 名詞가 글월을 構成함에 있어 가지는 職能이요, 둘째는 形態요, 끝으로 意味가 참고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이다〉의 品詞上 位置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다〉는 自立할 수 있는 말은 아니나 自立形態素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이므로 單語의 資格을 가진다. 한편, 品詞分類의 기준에선 職能이 그 첫째이므로 形態로는 獨立한 品詞로 설정할 수 있을 만한 것일지라도 그 內容(意味)이나 職能으로 보아 다른 말과 같은 內容, 같은 職能으로 된 것이면

19) 金亨奎, 「國語 品詞分類의 問題點」,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1968, p.4.

20) 박지홍, 「국문법의 품사분류론」, 한글 128 호, 1961, p.86.

21) 金亨奎, 「국어학개론」, 일조각, 1982, p.142.

22) 김민수, 「국어 품사론」, 고대문리논총 2집, 1957, p.9(81).

獨立한 별개의 品詞로 設定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²³⁾ 때문에 <이다>의 경우는 助詞(敘述格 助詞)로 처리됨이 마땅할 것이다. <이다>는 意味上으로 實質語가 아닌 形式語인 점에서나, 職能上으로 어떤 말에 덧붙어서 다른 말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점에서나 모든 조사(토씨)들과 같은 범주의 것이며, 다만 形態上으로 다른 조사들은 活用〔끝바꿈(語尾變化)〕을 아니하는데 <이다>는 “이다, 이고, 이니, 이면...”과 같이 끝바꿈을 함이 다른 토씨와 다르니, 이는 <이다> 자체의 말은 바 職分이 끝바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²⁴⁾ 學校文法에서도 <이다>를 한 文章에서 先行하는 體言으로 하여금 一定한 資格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 즉, 格助詞의 一種인 敘述格 助詞²⁵⁾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다>에 대해 “이 말은 自立性이 있는 말에 붙어서 敘述語를 만드는데, 다른 助詞와는 달리 活用을 하는 特殊性이 있다.”²⁶⁾고 說明하고 있다.

IV. <이다>에 대한 諸學者의 견해

구체적으로 <이다>에 대해 諸學者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問題點을 간단하게 지적하여 보려 한다. <이다>에 대한 견해로는,

- 1) <이다>는 指定詞(잡음씨)이다. — 최현배
- 2) <이다>는 依存形容詞다. — 강복수, 서병국
- 3) <이다>는 格語尾다. — 김민수
- 4) <이다>는 形態部の 敘述辭다. — 이남덕
- 5) <이다>는 敘述格 助詞다. — 정인승, 김형규
- 6) <이다>는 用言의 Sub-category다 — 신익성, 박지홍
- 7) <이다>는 名詞(體言)의 活用語尾다. — 이희승, 이승녕
- 8) <이다>는 接尾辭다. — 강길운
- 9) <이다>는 述格 접미사다. — 이석린
- 10) <이다>의 <이>는 體言敘述態의 接중사다. — 이길록

23) 정인승, 「우리말의 씨가름(품사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호, 1959, p.33.

24) 정인승, 「우리말의 씨가름(품사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호, 한글학회, 1959.

2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고등학교「문법」, 1985, p.21.

2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고등학교「문법」, 1985, p.21.

등이 있다. 이상의 견해를, <이다>를 獨立品詞로 보려는 立場과 獨立品詞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立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獨立品詞로 인정하려는 立場

(1) 잠음씨설

이 설의 가장 代表的인 최현배님은 <이다>는 “바탕(實質)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제 홀로는 일의 완전한 풀이가 되지 못하고, 항상 이름씨의 기움(補足)을 받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가 풀이하는 힘을 가진 독립한 풀이씨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다>를 바탕없는 그러나 한 獨立한 풀이씨 곧, 꼴풀이씨(形式詞)로 보고 잠음씨(指定詞)라 이름 짓노니, 이는 무엇이 무엇이라고 잡는(指定하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니라”²⁷⁾ 고 규정하고는 풀이씨의 한 갈래로 이러한 잠음씨를 세우는 具體인 根據를 다음의 네 가지로 提示하고 있다.²⁸⁾

첫째, <이다>는 풀이힘을 가지고 있다. 곧 <이다>는 영어에서 “be”와 같이 맺음말 노릇을 하는 움직씨 곧, copulative verb에 맞는 풀이힘을 가진 풀이씨라는 것이다.

둘째, <이다>는 끝바꿈(活用)의 노릇(機能)을 가지고 있다. 곧, <이다>의 <이>는 줄기, <다>는 씨끝으로, 이 씨끝이 움직씨나 그림씨처럼 끝바꿈을 함으로써 스스로 풀이씨의 한 갈래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세째, <이다>는 때매김(時制)의 표현을 가지고 있다. 때매김은 원래 움직씨 특유의 노릇인데 <이다>가 때매김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풀이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풀이됨의 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 <이다>는 독립꼴을 가진 낱말이다. 곧, <이다>는 씨끝이 아닌 하나의 낱말로 풀이씨의 물꼴을 갖추고 있는데, <있다>의 변한 꼴이니 그 독립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잠음씨’라는 독립 품사를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신익성은²⁹⁾ <이다>는 connector적인 性格을 가지고 어떤 것을 표(denote)하는 實質的 意味는 없고 다만 다른 語型(form)사이의 構造的인 關係만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아니다>와 같은 品詞로 취급하고 用言의 Sub-category로 認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

27)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 p.191.

28) 최현배, 「잠음씨에 대하여」, 연세논총 2집, 1963 pp.3~8.

29) 신익성, 「“-이다”에 대하여」, 한글 142호, 한글학회, 1968.

다. 그리고는 <이다>가 語幹과 語尾로 나누어지며 다른 用言과 흡사한 活用體系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品詞로서의 地位를 더욱 굳게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박지홍도³⁰⁾ <이다>는 <이>를 意義素로 한 獨立된 品詞로 用言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상 세 분의 견해를 보면, 共通的으로 <이다>를 獨立品詞로 認定하며 用語의 一種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본론의 對象에서는 제외된 것이지만, <이다>의 否定語인 <아니다>에 대해서 <이다>와 꼭 같은 活用體系를 가졌다는 形態의 特徵을 중시하여 같은 品詞로 規定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2) 依存形容詞說

강 복수님은³¹⁾ <이다>는 語性으로 보아 準自立用言으로서 그 文法的 特質이 形容詞에 一致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여 依存形容詞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이다(다)>는 그 基本語型이 <이다>이며 準自立語로서 다음과 같은 語性을 가진다고 說明하고 있다.

- ① 語意上으로 보아 實質的 內容이 없으며 抽象的, 形式的인 뜻을 가지고 있다.
- ② 形態上으로는 語幹과 語尾를 갖추고 있는 用言으로서 語尾活用을 한다.
- ③ 構文上으로는 항상 앞에 오는 實質的 內容을 가진 單語(復詞語)의 뜻에 依存하며 쓰인다.
- ④ 어휘변천상으로는 <이시다(有, 겨시다)>와 같은 自立語에서 그 뜻이 弱化되어서 이루어진 單語이다.

곧, <이다>는 用言으로서 形容詞에 속하며 依存形容詞로 다루는 것이 <이다> 자체의 語性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으로써, 品詞設定의 근거를 單語自體의 語性에 두어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서병국도³²⁾ <이다>는 國語의 單語規定 및 品詞設定에 있어서 完全自立語로서의 條件이 미비한 語意上, 文法上 不完全한 말이므로 準自立語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依存形容詞는 用言에 붙는데, <이다>는 體言에 붙었으니 약간의 무리는 있음을 지적했지만, 그래도 <이다>는 體言部分에서가 아닌 用言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依存形容詞로 보려는 立場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견해도 <이다>를 用言의

30) 박지홍, 「국문법의 품사분류론」, 한글학회, 1961, pp.94 ~ 97.

31) 강복수, 「“이다”의 語性에 대하여」, 영남대 논문집 2, 1969

32) 서병국, 「수관형사와 ‘이다’의 품사처리에 대한 이견」, 국어국문학 34, 35호, 1966.

一種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선 앞의 잠음씨설을 主張하는 立場과 一致하고 있다.

(3) 叙述格 助詞說

정인승은³³⁾ 〈이다〉를 助詞의 한 범주에 속하는 存在로 보고, 內容上으로 實質語가 아닌 形式語인 점에서나 職能上으로 어떤 말에 덧붙어서 다른 말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점에서나 모든 토씨들과 다 같은 범주의 것이며, 다만 形態上으로 다른 토씨들은 끝바꿈(語尾變化)을 아니하는 데 〈이다〉는 “이고, 이니, 이면...”과 같이 끝바꿈을 함이 다른 토씨와 다르니, 이는 〈이다〉자체의 말은바 職分이 풀이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마땅히 움직씨나 그림씨와 같이 形式上的 끝바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곧, “사람이다. 소(이)다.”에서는 “사람” 또는 “소”라는 한 完成된 낱말인 이름씨에 “이다”라는 말이 덧붙여 結合되어서 한 풀이말을 이루는 것이라 하고, 이는 마치 모든 體言에 “이, 가” 따위의 토씨가 結合되어 한 임자말(主語)을 이루는 것이다. 또는 “을, 를”의 토씨가 結合되어 부림말(目的語)을 이루며, “의”의 토씨가 結合되어 매김말(冠形語)을 이루는 方式과 똑같은 범주에 속하는 일이니, 이름씨를 풀이말되게 하는 “이다”라는 存在는 이름씨를 임자말되게 하는 “이, 가”의 存在나 부림말되게 하는 “을, 를”의 存在나 매김말되게 하는 “의”의 存在나 마찬가지로 “토씨”의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김형규도³⁴⁾ 體言은 그 自體로서 文法的 職能을 나타낼 아무 힘도 가지지 못하므로 이들 體言에 첨가되어 文法的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形態素인 토가 첨가된다고 하고는, 體言을 叙述語로 만드는 〈이다〉를 格的 一種인 서술격(폴이토)으로 보고 있다.

이석린도³⁵⁾ “사람이, 사람을, 사람에게, 사람이다”에서 “-이, -을, -에게, -이다”를 다 같은 접미사로 보고, 특히 〈이다〉를 述格 접미사로 보았다. 곧 〈이다〉는 “가, 을, 이, 에”들의 접미사와 같이 名詞에는 品詞의 影響을 주지 않는 述格 접미사란 것으로, 스스로도 밝힌 바와 같이 정인승 說대로 하면 “폴이토씨”라 하여 첨가어에 있어서의 概念詞가 아닌 關係詞로서의 “토씨”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기철은³⁶⁾ 〈이다〉가 助詞는 助詞이되 叙述格 助詞가 아닌 叙述助詞라

33) 정인승, 「우리말의 씨가름(품사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 호, 1959.

34) 김형규, 「국어학개론」, 일조각, 1982, pp.107 ~ 155.

35) 이석린, 「“-이다”에 대한 한 주장을 검토한다」, 한글 143 호, 한글학회, 1969.

36) 이울환외, 「국어학 신강」, 개문사, pp.160 ~ 173.

보고 있다. 格이란 특별히 體言의 他成分-體言이나 用言-에 대한 文法的인 構文關係를 意味하는 것으로, 이러한 機能의 形態를 格助詞라 하였다. 곧, 體言에 格을 表示하는 것을 格助詞라 할 때, <이다>가 格形態는 아니라 하여 <敘述助詞>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이다>를 敘述格 助詞로 보는 견해를 살펴 보았다.

2. 獨立品詞로 인정하지 않는 立場

(1) 體言(名詞)의 活用語尾說

이희승은³⁷⁾ 名詞가 主格, 所有格, 目的格 등과 같은 어떠한 格을 띠고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에 助詞가 붙고 活用하지 않지만, 名詞가 어떠한 글월 속에서 그 글월의 敘述語로 쓰일 경우에는 名詞도 活用을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세 가지 理由를 들어 <이다>를 名詞의 活用語尾로 規定하고 있다.

(1) 무슨 品詞가 敘述語로 쓰이든지, 敘述語는 活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2) 國語에서 한 글월이 成立되려면 반드시 敘述의 힘을 발휘하는 語尾를 가진 敘述語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敘述語는 반드시 語尾를 가지게 되고 그 語尾라는 것이 서양말의 Kopula와 같은 職分을 한다.

(3) 用言 아닌 體言이 語尾를 붙여서 活用하는 同時에 임시로 用言의 資格을 얻어가지고 敘述語로 쓰인다. 그러므로 體言도 活用되고 따라서 敘述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다>는 한 單語 될 資格이 없고 名詞가 敘述語로 使用되기 위하여 活用되는 語尾에 지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더 具體적으로 하면 <이다>의 <이>는 調音素로 <다>를 體言의 活用語尾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승녕도³⁸⁾

(1) 體言, 用言을 가리지 않고 모든 敘述語는 活用한다.

(2) 體言이 敘述語의 자리에 쓰이게 되면, 이에 따라 體言은 活用한다.

(3) 體言의 活用은 體言의 語尾의 모든 部分에 活用되는 것이 아니라, 그 敘述格만 活用하고 그밖의 모든 語尾는 格變化한다고 主張하여, 體言이 活用하고, <이다>의 <이>가 調音素라는 데에는 이희승과 같다.

37) 이희승, 「내가 주장하는 국어문법의 기준」, 한글 125호, 한글학회, 1959, pp.28~31.

38) 이승녕, 「고등국어문법」, (서울: 4289).

정왕교, 「이다」의 고찰(1977), 충남대 교육학 석사논문에서 재인용.

(2) 格語尾說

김민수는³⁹⁾ 體言은 用言의 語幹과 같은 固定部分인 語體와 語尾와 같은 變化部分인 토(格語尾)가 있기 때문에 語型變化(添用)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하여, 〈이다〉도 體言의 語型變化임에 틀림이 없고 또, 職能에 있어서 位格에 나열될 수 있는 性質이 있으므로 정인승의 方案에 공명하여 敘述格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인승과 다른 것은 정인승이 〈이다〉를 獨立品詞로 認定하는 데 대하여, 김민수는 獨立品詞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體言의 位格중 用言의 토(格語尾)인 敘述格으로 인정은 하면서도 獨立品詞로는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敘述格 助詞를 主張하는 立場과는 구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3) 접미사설

〈이다(이+다)〉는 獨立品詞로 내세울 수 없는 접미사라고 定義한 강길운은⁴⁰⁾ 이를 구체적으로 〈이다〉의 〈이〉는 媒介音이며 〈-다〉는 體言을 語幹으로 하는 用言型(敘述型)의 語尾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다〉를 名詞의 敘述態의 活用語尾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하고는, 〈이다〉의 〈이〉의 文法的 機能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첫째로, 論理的 명확성의 요구에서 삽입되는 것이다. 〈이〉는 〈이〉에 앞서는 것이 體言 또는 體言型이라는 表示가 된다.

둘째로, 빈번한 동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삽입되는 것이다. 用言 및 〔體言+格語尾〕(文節)과의 빈번한 동음 충돌이 회피되어서 體言이나 體言型的 實制的 意味가 명료해진 다.

셋째로, 調音素의 구실도 겸한다. 즉, 體言이나 體言型的 末音이 子音일 경우에 調聲母音 〈으〉를 대신 한다.

네째로, 따라서 〈이〉는 본시 語幹과 語尾 사이에 固定的으로 介在되었던 것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話者)의 主觀에 따라 恣意的으로 삽입되는 것이다. 즉, 말하는 이가 생각하기에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잘 이해하리라고 믿을 경우에는 〈이〉가 삽입되지 아니한다.

끝으로, 〈이다〉의 〈이〉와 〈다〉는 각각 접미사(광의의)이며 그것을 細分하면 〈이〉는 접미사(협의의)가 될 것이고, 〈다〉는 活用語尾가 될 것이다.

39) 김민수: 「국어품사론」, 고대문리논총 2집, 1957, pp.43(115) ~ 47(119)

40) 강길운,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I), 한글 120 호, 1956.

강길운,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II), 한글 123 호.

이상의 것을 提示하고, 調音素로서의 母音도 一種의 媒介母音이기는 하나 그것이 媒介母音의 全部는 아니라 前提하고 調聲母音이 곧 媒介母音이라는 생각은 잘못임을 強調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名詞의 活用語尾說을 주장하는 立場에서 <이>를 調音素로 보고 있는 것과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다>를 獨立品詞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다>를 名詞의 活用語尾로 본다는 점에선 共通點을 지닌다.

(4) 접중사설

이길록은 41) <이다>의 體言敘述態 接中辭라 하고 다음과 같이 그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1) <이다>는 自立形式이 아니므로 單語가 아니다. 따라서, 指定詞 依存形容詞 또는 助詞 등의 獨立品詞로 처리할 수 없다.

(2) <이>는 調音素가 아니라 文法的 機能을 가진 接辭이므로 派生接辭도 아니다.

(3) <이>는 屈曲接辭를 통솔하는 서열기능이 있으므로 격토(格助詞나 格語尾)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4) <이>는 오직 屈曲接辭를 통솔하는 體言敘述態 機能의 接中辭다. 體言은 格變化(曲用法)를 하고, 用言은 語尾變化(活用法)를 하는데 用語에 [m,ki]가 媒介되어 用言이 體言의인 機能(曲用法)을 하고 體言에 i가 媒介되어 體言이 用言의인 機能(活用法)을 하는, 곧 [m,ki]와 i가 서로 대응되는 形態論的 構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말 文法構造의 특색이다. 그러므로, <이>를 調音素라든지 意義質이라 하여 <이>의 文法的 機能을 도외시킬 수 없다. 곧, <이>는 體言敘述態機能의 文法素라는 것이 分明하다.

(5) 따라서 ‘꽃이다’는 ‘꽃+이+다=名詞+(體言敘述態)接中辭+語尾’로 分析되며, 세 개의 形態素(自立形態素+依存形態素+依存形態素)로 이루어진 한 개의 單語이다.

(6) 그러므로, 사전에의 수록은 <이>와 <다>를 분리해서 <이>(體言敘述態接中辭)만으로써 표제어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곧, <이다>를 獨立品詞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依存形態素로 接中辭이며, <다>는 依存形態素로 語尾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1) 이길록, 「국어 문법 연구」, 일신사, 1981, pp.150~176.

3. 기타의 立場

이남덕은 42) 〈이다〉를 敘述辭라 하여 形態部에 자리를(助詞 옆에)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하곤,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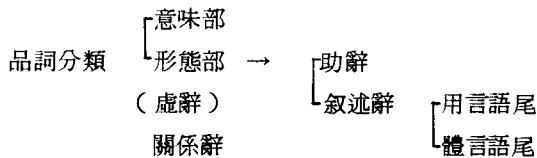
① 〈이다〉가 外國語와 特性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外國語의 分類와는 달라도 좋다.

② 〈이다〉의 〈이〉가 語幹이 아닌 것만 확실하게 된 만큼(그래도 用言일 수는 있다. 진술력을 가졌으니) 用言의 진술부와 함께 취급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③ 〈이〉가 調音作用을 하여 때로 감추어진다는 것은 言衆의 言語意識에서 獨立性을 인정받지 못하는 증좌이다.

즉, 이상에서와 같이, 〈이다〉는 獨立品詞가 아닌 形態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形態部를 獨立品詞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意味部에 대하여 따로 두고 서로 상관하는 狀態로 研究함이 合理的이요, 形態部의 機能面에 대한 認識을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칭 문제는 그리 중대하지 않다고 하고 다만 形態部를 品詞로 둔다면 實詞와는 분간하여 辭라 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實詞와 虛辭가 統合되는 語節을 文法考察의 單位(單語와는 다름)로 하고 單語는 實詞만에 限하여 부르는(名詞: 사람, 形: 밝다, 動: 가다)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굳이 形態部를 獨立品詞로 한다면 〈이다〉는 助辭 옆의 敘述辭로 봄이 타당하리라 보고 있다. 곧 品詞를 우선 意味部와 形態部로 나누고 形態部를 다시 助詞와 敘述辭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42) 이남덕, 「지정사 “이다”에 대하여」(上) 국어국문학 통권 11 호.
「지정사 “이다”에 대하여」(下) 국어국문학 통권 12 호.

V. 諸見解에 대한 問題點

- 叙述格 助詞의 立場에서⁴³⁾ -

이상에서 <이다>에 대한 諸學者들의 견해를 살펴 보았다. 이에 대해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1. <이다>는 指定詞가 아니다

<이다>를 指定詞로 다루는 立場은, <이>의 存在를 認定하면서 <이다> 자체가 곧 主語에 대한 用言이 된다는 점과 또, 그것을 <아니다>와 같이 다루는 것은 수긍되지 않는다.

用言이란 것은 主語의 內容을 說明하는 곧, 主語의 속성을 나타내는(完全이든 不完全이든 간에) 것인데 “그이가 학생이다.”에서의 풀이의 能力이 <학생>에 있지 아니하고 <이다>에 있다면 “그이가 예쁘다.”에서의 풀이의 能力은 <예쁘>에 있지 않고 <다>에 있다 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요, 만일 活用으로써 풀이의 能力을 認定한다면 더욱 語幹보다도 語尾가 풀이의 能力을 가진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니, “학생이다.”에서는 풀이 能力이 <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에 있다고 함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풀이의 能力이 어느 部分에 있든지 막론하고 部分的으로 풀이의 能力만 있다고 그것이 곧 用言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主語에 대한 內容說明이 되어야 用言이 될 수 있으니, “학생이다.”는 그 全體가 한 用言이 될 뿐이다.

한편 <아니다>의 경우는 <이다>와 活用體系가 같기는 하나 그 쓰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가령, “그이가 학생이다.”와 “그이가 학생이 아니다.”를 비교할 때 <이다>는 名詞<학생>에 직접 붙지만 <아니다>는 <학생이>와 같이 名詞에 먼저 助詞가 붙은 다음 <아니다>가 따로 온다. 따라서, <아니다>는 <아니다>만으로도 不完全하나마 形式上으로 한 用言이 되는 것이다.

결국, 名詞란 반드시 助詞가 붙어야 어떠한 職能을 하는 것이며, <이다>는 언제나 다른 말 밑에 붙는 것이니 “학생이다.”에서 <이다>는 조사로 규정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3) 정인승, 「우리말의 씨가름(품사분류)에 대하여」, 한글 125 호, 1959.

2. 〈이다〉는 依存形容詞가 아니다

이 立場도 〈이다〉를 用言의 一種으로 보는 것으로, 그것은 이미 앞의 指定詞를 否定하는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곧, 〈이다〉는 用言이 될 수 없으며, 이 立場을 主張하는 학자 스스로도 依存形容詞는 用言에 붙는데 〈이다〉는 體言에 붙었으니 약간의 무리는 있다⁴⁴⁾ 고 밝히고 있다.

3. 〈이다〉는 體言의 活用語尾가 아니다

〈이다〉의 〈이〉를 調音素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로는 名詞가 原則적으로는 그대로가 한 名詞이고 거기에 助詞가 붙는 것이로되, 〈이다〉가 붙을 때에는 名詞는 그대로만이 아니고 〈이다〉까지 합쳐서 한 名詞가 되어 본디의 名詞는 줄기가 되고 〈이다〉는 語尾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즉, 한 개의 名詞가 때에 따라서 없던 部分이 생기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있던 꼬리를 떼어 버리고 다른 品詞인 助詞를 꼬리처럼 붙이기도 하는 매우 불분명한 形態로 된 品詞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이다〉를 助詞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무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現在의 言語事實로서나 歷史적으로나 또는 音韻上내지는 形態上으로 否認할 수 없는 〈이〉를 편이상 調音素로 간주함으로써, 예상밖의 무리와 不合理의 많은 결함을 내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다〉의 〈이〉는 音韻上으로의 調音素가 아닌 語法上으로 한 職能을 가진 要素로 이것이 語幹이 되어 “~다, ~고, ~지” 들로 活用하는 것이다.

4. 〈이다〉는 格語尾가 아니다

이 견해는 “학생이다.”에서 〈이다〉를 敘述格 語尾로 보는 것으로, 敘述格으로 보는 면에서는 敘述格 助詞로 보는 立場과 一致하며, 用言과 같이 體言의 語型變化를 認定하는 것은 〈이다〉를 體言의 活用語尾로 보는 (4)의 견해와 비슷하다.

그러나 體言과 用言의 關係를 똑같이 보아서 名詞와 語幹은 이른바 實辭요, 助詞와 語尾는 虛辭인 점으로 미루어, 實辭에 虛辭가 붙는 關係로는 같이 붙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名詞는 한 개의 獨立된 낱말(單語)임에 대

44) 서병국, 「수관형사와 ‘이다’의 품사처리에 대한 이견」, 국어국문학 34, 35호, 1966. p.254.

하여 動詞・形容詞의 語幹은 한 낱말의 一部分이지 결코 語幹 그것이 낱말은 아니다. 그리고 같은 實辭라도 形態的으로 크게 다를 뿐 아니라 같은 虛辭라도 助詞의 경우는 비록 虛辭일 망정 비교적 自由롭게 名詞와 분리되어 다른 品詞에 가서 붙을 수 있지만 用言의 語尾는 절대로 語幹에서 떨어질 수 없는 存在로 언제나 語幹과 語尾가 結合해야 한 개의 單語資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名詞와 助詞는 각각 낱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語幹과 語尾는 서로 한 낱말의 部分品이 될 뿐이니, 단순히 개념상으로의 實辭・虛辭라는 점만 가지고 品詞分類의 本意를 망각한 처리를 하여서는 말의 조직을 밝힘이 순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처리가 될 뿐이다.

5. <이다>는 接尾辭가 아니다.

接尾辭說도 (3)의 견해 즉, <이->를 調音素로 보는 것과 비슷하다. 정길운⁴⁵⁾은 調聲母音이 곧 媒介母音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가 調音素의 구실도 겸하고 있음을 認定함으로써 (3)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더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6. <이다>는 接中辭가 아니다.

국어에서 과연 接中辭의 設定이 가능한가

이길록⁴⁶⁾은 接辭(affix)를 그 序列의 位置를 基準으로 分類하여 接頭辭, 接中辭, 接尾辭로 나누고, 接中辭를 細分하면 다음과 같다.

接中辭 [㉠ 먹히다. 높이다.
 [㉡ 먹겠다. 꽃이다.

㉠은 어휘적 접사 ㉡은 문법적 접사라 하여, <이>는 이 序列의 分類에 의하면 文法的 接中辭(屈曲接中辭: grammatical infix)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의 <히>나 <이>는 각각 動詞・形容詞 語根에 붙은 接尾詞로 文法的인 면에서 被動・使動을 나타낸 것이며, ㉡의 <겠>의 경우는 未來를 나타내는 先語末語尾로 接辭가 아니다. <이>도 體言에 붙은 助詞일 수밖에 없다. <이>를 接中辭로 본 것은 外國文法體系에 의해 同一系統의 언어가 아닌 우리

45) 강길운,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Ⅱ), 한글 123 호, pp.47 ~ 49.

46) 이길록, 「국어문법연구」, 일신사, 1981, pp.150 ~ 176.

말을 처리한 처사로 不合理한 것이다. 우리말에서 接中辭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때문에 〈이-〉를 接中辭로 보는 立場도 國語의 特性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견해로 생각된다.

7. 〈이다〉는 叙述辭가 아니다.

獨立品詞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이-〉가 調音作用을 한다.⁴⁷⁾는 것으로 보아 3과 5.의 立場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앞에서 〈이-〉는 단순한 音韻上으로의 調音素가 아닌 語法上으로 한 職能을 가진 요소임을 밝혔으므로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보아 〈이다〉의 立場은 확실히 되었다고 보여진다. 곧, 〈이다〉의 〈이-〉를 認定하는 同時에 〈이다〉가 名詞에 직접 붙는 助詞의 하나로서, 풀이자리(叙述格)로의 職能上 다른 用言들과 같이 形式上의 活用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다〉문제 처리의 가장 合理的한 견해라 생각된다. 혹, 實質語가 아닌 助詞로서 活用함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實質語가 아닌 말로서 더우기 單語資格도 가지지 못한 接尾辭인 “스럽다. 답다. 앓다. 브다.” 따위도 다 活用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叙述格 助詞의 活用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결국,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다〉는 助詞로서 自立性이 있는 말에 붙어서 叙述語를 만들며 다른 助詞와는 달리 活用을 한다는 特性을 가진다.⁴⁸⁾ 따라서, 學校文法에서 叙述格 助詞로 다룸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VI. 結 論

이상 〈이다〉에 대해 叙述한 것을 綜合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單語의 規定은 우리말의 特性을 염두에 두고, 그 글월에 포함된 單語의 性格에 따라서 獨立할 수 있는 말은 獨立시키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한 덩어리로 하여 單語를 定立시키자는 절충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7) 이남덕, 「지정사 ‘이다’에 대하여」(上), 국어국문학 11호, 1954.

「지정사 ‘이다’에 대하여」(下), 국어국문학 12호.

4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고등학교「문법」, 1985, p.21.

單語란 自立할 수 있는 말이나 自立形態素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들로 規定한다.

(2) 單語가 가지는 性質을 基準으로 分類한 것이 品詞이고, 品詞의 設定은 文法記述이 効用이란 문제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品詞分類는 意味・形態・職能의 單語가 가지는 세 가지 性質을 기준으로 삼되, 첫째는 그 낱말이 글꼴을 構成함에 있어 가지는 職能을, 둘째는 形態를, 끝으로 意味를 참고하는 綜合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상의 理由로 <이다>는 獨立된 단어이며 品詞上 敘述格 助詞의 位置를 가진다.

(5) <이다>에 대한 제견해들은 각기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理論文法을 바탕으로 한 學校文法에서는 <이다>를 敘述格 助詞로 認定하고, 이는 自立性이 있는 말에 붙어서 敘述語를 만들며 다른 助詞와는 달리 活用을 하는 特性을 가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單語規定과 品詞的 考察을 통해서 살펴본 <이다>의 敘述格 助詞로서의 位置는 타당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길운,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I), 한글 120 호, 지정사는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II) 한글 123 호,
- 강복수, “이다”의 이성에 대하여 영남대논문집 2집, 1968.
- 김민수, 국어 품사론, 고대문리논총 2집, 1957.
- 신국어학, 일조각, 1985.
- 김윤경, 말의 발달의 방향과 씨가름, 한글 125 호, 1959.
- 김형규, 국어 품사분류의 문제점,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1968.
- 국어학 개론, 일조각, 1982.
- 박지홍, 국문법의 품사분류론, 한글 128 호, 한글학회, 1961.
- 서병국, 수관형사와 ‘이다’의 품사 처리에 대한 이견, 국어국문학 34.35 호, 1966.
- 국어 문법 논고, 형설출판사, 1973.
- 신익성, “-이다”에 대하여, 한글 142 호, 한글학회, 1968.
- 이길록, 국어 문법 연구, 일신사, 1981.
- 이남덕, 지정사 ‘이다’에 대하여 (上), 국어국문학 11 호.
- 이석린, 잡음씨 “이다”에 대하여, 한글 127 호.
- , “-이다”에 대한 판 주장을 검토한다. 한글 143 호, 한글학회, 1969.

- 이승녕, 나의 문법 연구의 태도, 한글125호, 한글학회, 1959.
- 이을환外, 국어학 신강, 개문사.
- 이종석, '학교문법' 20년분쟁의 내력, 신동아 29호, 1967.
- 이희승, 국어학 개설, 민중서관, 1955.
- , 내가 주장하는 국어문법의 기준, 한글 125호, 한글학회, 1959.
- 장하일, 낱말의 정의, 이희승선생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1957.
- 정왕교, '이다'의 고찰, 충남대 교육학 석사논문, 1977.
- 정인승, 우리말의 씨가름(품사분류)에 대하여, 한글125호, 한글학회, 1959.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
- , 잡음씨에 대하여, 연세논총 2집, 1963.

〈 87.2卒業豫定〉